

이선희와 함께하는 新年음악회



1984년 MBC강변가요제에서 '에게'를 불러 국민들을 한순간 놀라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가창력의 가수 이선희가 포천시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28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1984년 MBC강변가요제에서 '에게'를 불러 국민들을 한순간 놀라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가창력의 가수 이선희가 포천 시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120분간 펼쳐지는 '이선희와 함께하는 新年음악회'는 소녀같은 이미지에서 작은 거인의 모습으로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처음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반월아트홀이 주최하고 모스틀리 팝스오케스트라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김희정, 테너 박현재, 솔리스트 등이 함께해 다채롭고 알찬 무대가 될 전망이다.

데뷔이후 12장의 정규앨범을 내며 '에게', '아 옛날이여', '아름다운 강산', '한바탕 웃음으로', '영', '나 항상 그대를'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고정 팬을 가지고 있는 이선희와 함께 하는 본 공연은 오는 14일부터 예매가능하다.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능하며 R석 : 25,000원 / S석 : 20,000원 / A석 : 15,000원이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월아트홀(전화 031-530-8988)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bwart.net)를 참고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인터뷰 ● 용운기 포천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장

포천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 큰 효과 연인원 6만명 관람

포천반월아트홀(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96-2번지)이 2004년도 전국 지방문화예술발전 및 지방문화공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31일 전국 문화회관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관 1년만에 이룬 이같은 성과는 포천시의 문화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용운기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장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연인원 6만여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에 직접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붙이며 홍보한 결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반월아트홀 개관에 대한 시민들의 큰 기대에 대해 포천시는 우선 직접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한 후에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따라서 2003년10월에 개관한 반월아트홀은 1년여만에 직접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의 공연관람 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포천반월아트홀을 지난 1년여간 이끌어온 용운기 관리사업소장을 만나 성공비결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용운기 포천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장

용운기 소장은 개관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객석이 비어 있을 때는 잠이 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서 객석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용운기 소장은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공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연 관람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줘 고맙다고 인사할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월아트홀은 개관 이래 뮤지컬, 무용, 음악, 연극, 발레, 오페라, 국악, 판소리 등 15개 장르의 기획공연 46회 실시하여 3만2999여명의 시민이 관람하여 평균관객석 점유율 81%로써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용운기 소장은 "포천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목말라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명실상부한 공연장으로 급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용운기 소장은 "21공의 야외무대를 광장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연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외무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흠뻑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져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 공연이 없는 날에는 영화상영을 실시하여 반월아트홀에 가면 항상 볼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했다.

용운기 소장은 "2005년도 기획공연 초청예산 4억5천만원과 2천만원의 기획공연 예산이 세워져 있어 훌륭하고 검증된 작품을 염선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여 기획공연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화예술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에 기획공연 예산의 30~40%를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용운기 소장은 "아직은 이렇다할 계획이 없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예술단체에 기획공연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공연 선정에 있어 '작

품성정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대해 용운기 소장은 "반월아트홀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천반월아트홀 공연현황을 보면 기획공연은 2003년도 20건 2004년도에 57건 등 모두 77건의 공연 및 전시를 했으며 이중 전시회는 4건이다. 대관공연은 2003년도에 10건과 2004년도에 64건 등 모두 74건으로 이중 전시회는 9건이다.

관람인원은 기획공연이 2003년도에 공연 1만 2천956명, 전시 2천750명, 1만5천706명, 2004년도에는 공연에 3만6천741명이며 전시에는 4천147명, 4만1888명으로 집계됐다. 대관공연은 2003년도에 공연 5천80명, 전시 300명 등 5천380명, 2004년도에 공연 2만4천477명, 전시 6천468명 등 3만945명으로 집계됐다.

포천반월아트홀은 문자 메시지 전송, 케이블 TV, 지방·지역신문개제, 현수막 게시, 전단지, 포스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공연정보를 알리고 있다.

용운기 소장은 "특히 공연 포스터는 반월아트홀 직원들이 직접 14개읍면동을 비롯해 관외지역인 의정부, 동두천, 철원, 남양주시 등에 부착하여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으로 포천반월아트홀은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안고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의 명실상부한 공연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포천반월아트홀 전경.

김진동 포천예총회장 '예술문화상 대상'

포천지역 인사로는 최초로 수상

김진동 한국예총 포천시지부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예총 예술문화상은, 한국예총 본부에서 매년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예술인들을 가문예총 산하 10개 협회 및 시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예술인에게 있어 최고의 상으로, 대상과 공로상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서예가인 김진동 지부장은 이번 미술부문에서 예총 경기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포천지역 인사가 예술문화상 대상을 받는 이 번이 처음이다.

또 이와 함께 예총 포천시지부 정재운 사무국장도 이번에 예술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는 이정열 포천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과 수상축하연이 열렸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지난해 12월27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이정열 포천시부시장(왼쪽)이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포천문화원은 우리춤체를 비롯 사물놀이, 꽃꽂이, 사군자, 종이공예, 대금 등의 프로그램으로 제2기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춤체조" 배워요

포천문화원 文化學校 2기생 모집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해 이어 시민들의 문화와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개월 단위의 제2기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원 2층 전시설을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될 금년 문화학교는 16주 단위로 3기로 나누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사물놀이, 우리춤체조, 꽃꽂이, 사군자, 종이공예, 대금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소양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개설과목의 전문성 및 수준수업을 고취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2기 수강생 모집은 6개 과목별로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간 선착순 모집으로 포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홈페이지(http://www.pcmh.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536-1020) 또는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자아실현의 계기를 제공하는 등 점차 과목을 증설하여 시민의 소양향상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9)

'닭의 해' 이야기(1)



새해는 을유(乙酉)년으로 닭의 해이다. 닭(domestic Fow)은 꿩과 닭속, 닭종의 속하는 척추 동물로 날개가 작아 잘 날지 못하며, 대신, 다리는 매우 튼튼하여 달리기를 잘 하며 주둥이는 짧고 튼튼하여 가슴 앞에 먹이를 저장하는 작은 주머니 즉, 소낭이 있고 발로 헤치는 습성이 있으며 알을 낳고 집을 찾아 오는 본능이 있어 개와 함께 인간과 매우 가까운 가족으로 적당하다. 닭의 꼭두조상은 인도 중부 삼림지대에 사는 적색야계(GALLUS BANKIVA)이나 여러 곳에 선조를 두고 있다는 학설도 있다. BC 1500년경 중국에서 가족으로 기른 것이 최초이며 한국은 '인도→중국→한국'전래설이 유력하다. 닭은 산란용, 육계, 관상용이 있으며 여러 가지 분류법에 의한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 나라에는 '레구홍', '뉴우렙서' 등 산란 개량종이 있으며 '프리머트' 등 육계종이 있으며 금계 등 다양한 관상닭이 있다.

(닭의 용도는 목자들이 더 잘 알 것이나 생각하기도 한다.) 옛 풍습에 의하면 닭의 울음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 열 번 넘

어 울면 그 해에 풍년이 온다고 한다. 닭의 습성으로 정확한 시각을 맞춰 우는 버릇이 있으나 요즈음은 그렇지 않아 닭의 덕(德)을 잊은 듯 하여 섭섭하다. 숲꾼들이 해질 무렵 석양배(夕陽盃)라는 맛난 술 먹는 시각을 정했는데 그 시각이 유시(遺時)로 술(酒)자를 닭이라고 웃으며 떠들기도 한다.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큰 대접이었는데 평생 손님이라는 사위는 처가며 씨암탉을 먹는 진객(珍客)이었다.

내 고향 포천의 토종닭은 유명하여 지금껏 사랑을 받아왔다.

새해에는 닭의 덕인 믿음(과 부(富)와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닭의 덕의 분발과 도약을 기대해 보기로 하자. (1921년, 1933년, 1945년, 1957년, 1969년생, 1981년생) 해방동이(解放童)들이 환갑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1933년생은 8.15해방 후, 제1회 졸업생(국민학교=초등학교)이며, 6.25 당시 학도병이나 학도의용군으로 피흘려 나라를 지

킨 분들이기도 하다. 1945년 조국광복의 해방의 종소리가 울리지 60년 가까이 무량하다. 조국통일의 종소리도 2005년 닭의 해에 울렸으면 좋겠으며 닭의 울음소리 같이 희망의 새 아침, 꿈이 이루어지는 새 아침이 밝아 왔으면 좋겠다. 포천출신 한국화 화가 오병인교수(안동대:정년퇴직)는 12년 전 닭의 해에 TV를 통해 멋진 닭의 그림을 그려 유명했던 생각이 난다.

'닭의 해' 이야기(2)

「복을 부르는 동물, 즉, 「약을 좇고 상사로움에 전해 주는 동물」로 닭이 전해 왔다. 서양의 유명한 소설「열정」에는 미대륙 인디언들이 아침 해 뜨기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신에게 매일 새벽 해가 뜨기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 잃은 여행객이 해뜨게 하는 「닭새」를 다시 찾는 모험에서 전해준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닭은 아침과 희망을 부르는 새라는 얘기가 된다. 닭은 어둠을 견뎌내고 세상을 밝히는 영험한 가족이다.

즉, 닭은 광명(光明)의 상징이다.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공은 계몽에서 흰닭의 울음소리의 축복을 받으며 금계에서 태어났으며 신라 시조 혁거세의 부인은 계몽에서 태어났다.

이름난 조숙의 「금계도」(1595~1668)는 임금의 명으로 그린 보물이다. (김알지 탄생도) 고분에서 출토된 「닭 연적」(종묘 제례에 쓰던 제기 「계(鷄)」도 유명한 닭을 주제로 한

광명과 희망을 상징한 조각품이다. 옛 선비들은 정월 초하루 새벽 대문이나 내다 붙여 액을 쫓는다는 세화(歲畫)에도 닭이 단골 그림이었다. 입신출세(立身出世) 부귀공명(富貴功名)의 상징도 닭이었다.

즉, 변상벽(下相壁)의 「계도(鷄圖)」장승업의 「화조십이지 병풍-닭」도 유명하며 「모란과석도」도 있다.

이렇듯 닭은 희망과 광명과 부귀공명과 입신출세의 상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옛날들은 무덤 속에도 닭의 조각상을 묻어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어 재미있다.

사위가 처가를 가면 장모님이 사위를 자극히 사랑하는 후대의 표시로 씨암탉을 잡아서 대접하였는데 옛날 어린 신랑(13세~16세)들은 통닭을 뜯는게 조심스러워 국물을 훌쩍여서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국물만 마시는 꼬마신랑을 마을 사람들이 박력이 없다고 흉을 보면 장모님은 오히려 조심성있는 신랑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귀한 씨암탉도 귀한 사위의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대접을 한 것이었다. 시계가 없던 옛날 닭을 울음소리를 가늠하던 슬기로운도 사람 받는 닭의 일면이었다. 한반도 최고의 명당인 계룡산(鎭龍山)도 「닭과 용」이 조화를 이루는 산으로 유명하며 한국 최고의 운명예언사라는 정감록에도 「신도안」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고 있음도 계룡산의 닭의 광명을 상징하는 주봉의 산세 때문이었다.

12년 전, 닭의 해에는 포천출신 동양화가 오병인교수(안동대 정년퇴직)가 TV에 출연하여 능숙한 필치로 닭의 그림(투계도)을 그려 명성을 날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필자연락처 : 02-932-2434